

# 「바이오생태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역할」

2016. 11. 8

신정섭

# 생명의 단위



유전자



세포



개체



가이아



은생명



개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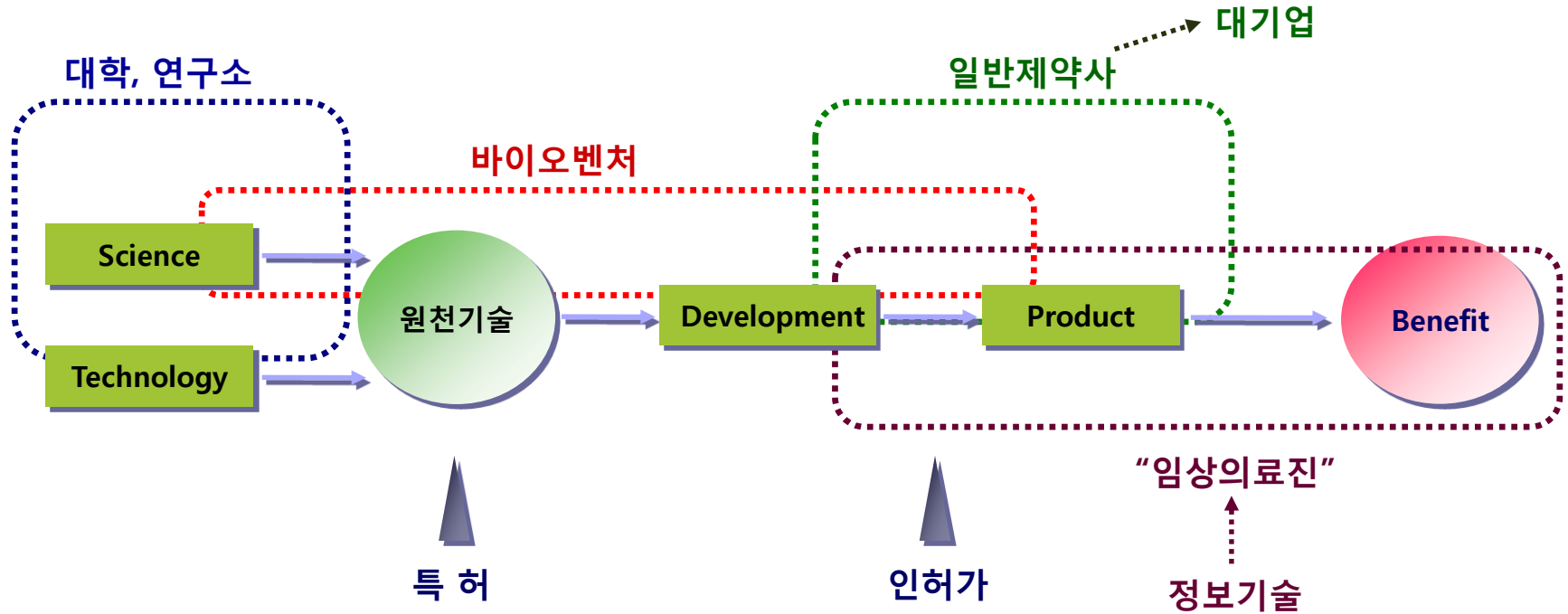


회사(법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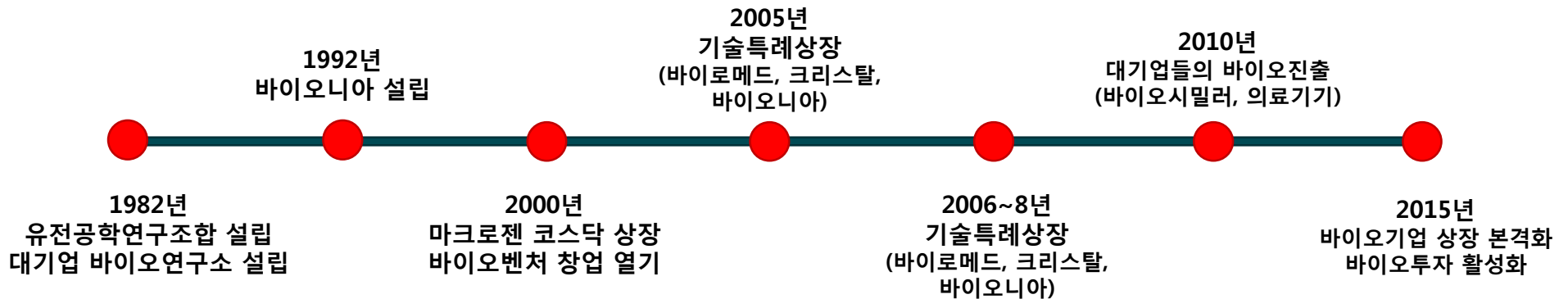


기업 생태계

# 한국 바이오산업의 가치사슬 : Missing Link는 어디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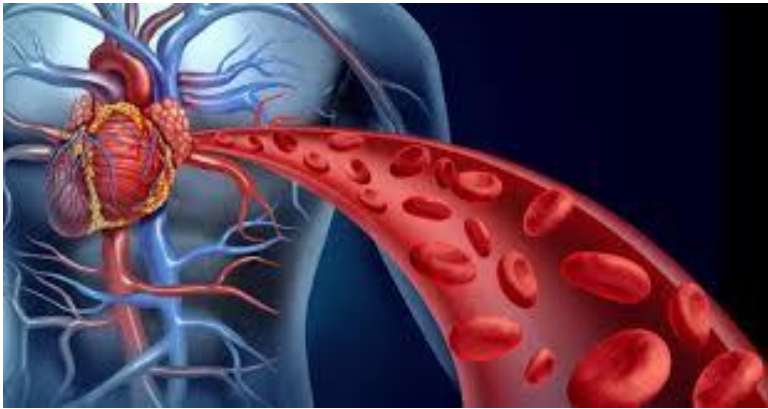


# 한국 바이오산업의 역사



- 미국 바이오산업의 등장에 맞춰 기업, 연구자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(1980년대 초반)
- 미국 바이오버블의 시기에 바이오벤처 창업이 활성화(2000년 전후)
- 그린바이오의 선전 및 5년의 암흑기(2000년대 초반), 줄기세포 스캔들 및 우회상장의 유행(2000년대 후반)
- 대기업의 바이오 진출(2010년 이후)
- 글로벌 기술이전, 바이오기업의 상장 본격화 및 투자, 창업 활성화(2015년 전후)

# 바이오생태계에서 금융의 역할



혈액 : 에너지(포도당, 산소) 공급

금융 : 에너지(자금) 공급



# 벤처캐피탈(VC)의 정의, 역할

VC는  
'재무적 투자자'

-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를 지양한다.
- 기업의 핵심역량, 기밀 정보를 보호한다.
- 투자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후속지원을 한다.

VC의 역할

- 가장 자유롭게 구조를 짜고,
- 전위에 서서,
- 투자기업에 자원을 공급한다.
- 그리고 기업과 기술, 기업과 기업, 기업과 병원을 "연결".

일반 금융

안정성, 재무상태, **담보능력** 중시  
원리금 상환으로 자금 회수  
안정성 지향의 고객 예수금으로 용자  
위험을 회피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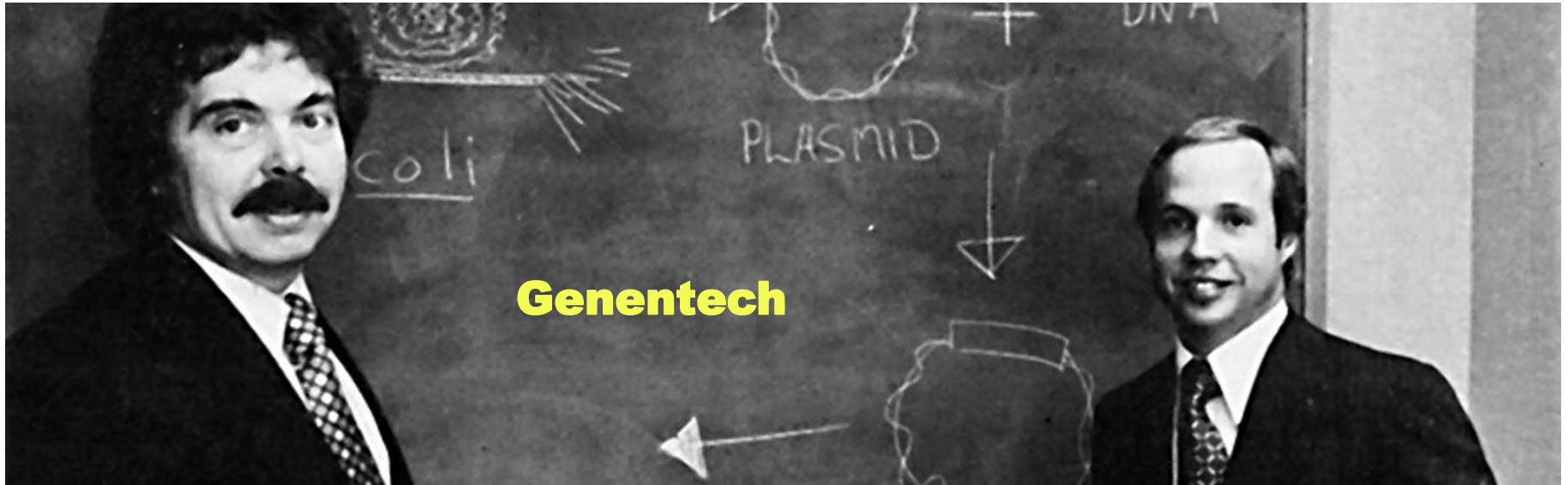
회사가 망할까?

벤처캐피탈

**기술성**, 사업성, 경영능력 중시  
투자기업의 성공  $\propto$  투자수익률  
후속투자 등 다양한 사후관리 모색  
위험을 분석하고, 위험을 '먹는다'

회사가 성공할까?

## 바이오와 벤처캐피탈의 인연



*바이오산업, 과학과 모험자본(Venture Capital)이 낳았다...*

*바이오, 과학적 성과가 산업적 성과로 바로 이어지는 새로운 산업 형태를 창출*

# VC 투자의 진화 : EIR(Entrepreneur In Residence)

Entrepreneur in residence (EIR), sometimes executive in residence, is a position or title within the venture capital, typically held by a seasoned entrepreneur who is brought on-staff by a venture capital firm.

The EIR role in a venture capital firm is often designed to fill one of three primary functions:

- To launch a new entrepreneurial venture, often with the backing of the parent firm or organization;
- To assist in the evaluation of potential investments where the entrepreneur has a particular expertise; or
- To provide functional expertise to assist with an existing investment.<sup>1</sup>



← EIR : 나스닥상장 경험보유 CEO

← Series A(2008), B(2010), C(2012)



# 바이오의 영역 및 VC 투자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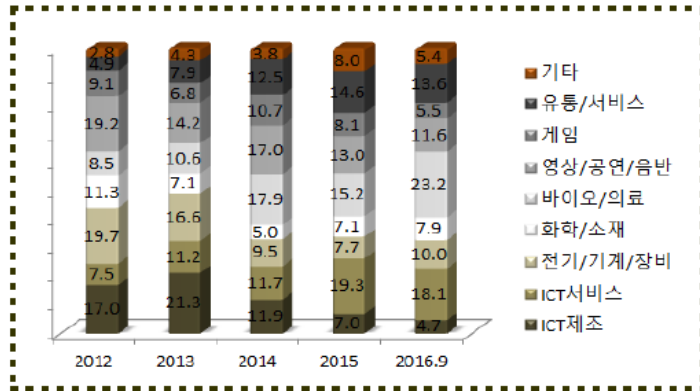


- VC의 바이오 투자는 Red Bio에 집중
- 글로벌 바이오산업이 제약산업에 편입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음.
- Green Bio 및 White Bio는 벤처기업 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전개되고 있음.
- 향후 Green 및 White Bio 분야에서 요소기술의 대두에 따라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.
- 융합분야(BT-IT, BT-NT, BT-전통산업 등)에 대한 VC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.

# VC 투자의 경향

업종별 신규투자 비중

(단위: %)



코스닥 신규상장

(단위: 개, %)

	2012	2013	2014	2015	2016.9
IPO수	20	34	40	57	24
VC투자기업	14	26	26	46	17
비 중	70.0	76.5	65.0	80.7	70.8

업종별 신규투자 금액

(단위: 억원)

	2012	2013	2014	2015	2016.9
ICT제조	2,099	2,955	1,951	1,463	693
ICT서비스	918	1,553	1,913	4,019	2,678
전기/기계/장비	2,433	2,297	1,560	1,620	1,477
화학/소재	1,395	989	827	1,486	1,174
바이오/의료	1,052	1,463	2,928	3,170	3,432
영상/공연/음반	2,360	1,963	2,790	2,706	1,726
게임	1,126	940	1,762	1,683	811
유통/서비스	608	1,092	2,046	3,043	2,016
기타	342	593	616	1,668	808
합계	12,333	13,845	16,393	20,858	14,815

- 2000년대 초반 바이오투자: 2%
- 2013년 바이오투자 : 10.6%
- 2014년 바이오투자 : 17.9%(2,400억원)
- 2016.9월 바이오투자: 23.2% (cf. ICT서비스 18.1%)

양적인 측면에서,  
바이오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.

# 바이오생태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역할

## 자원

- Research는 연구자의 몫, Development는 사업가의 몫 : 타율 vs. 방어율 / 창의성 vs. 리스크관리
- 벤처캐피탈은 기업 생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,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투자 구조, 사업 구조를 짤 수 있다.

## 보육

- 혁신기술의 창업 유도가 필요하다 : 쉬운 창업, 인생 다결기의 지양 등등
- 그러나, 창업의 Key Drive Force는 Incubating을 통하여 기술자가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. 그리고 사업 전문팀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는 것.
- 바이오초기펀드의 핵심은 '보육', 바이오초기펀드 결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.

## 연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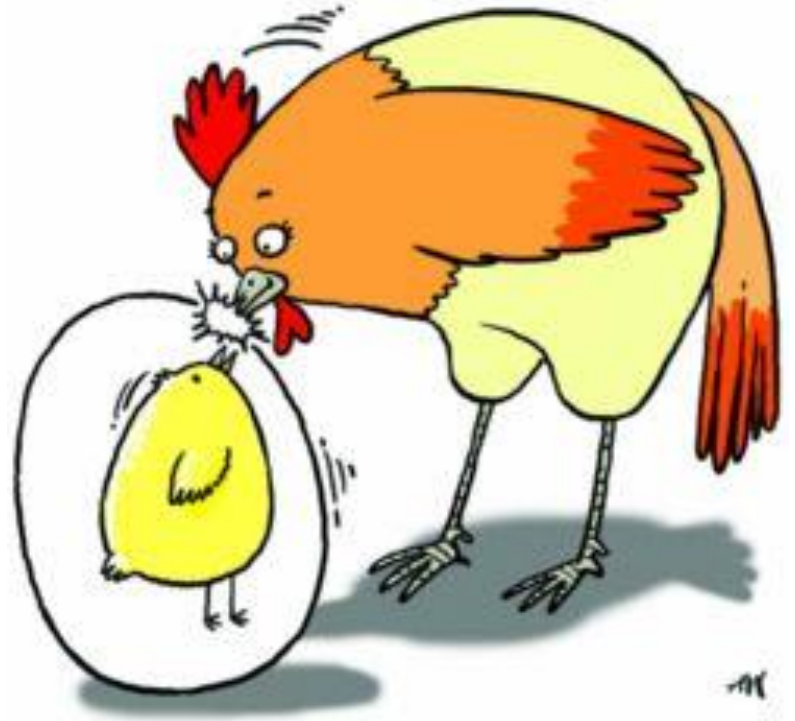
- 기술과 기업의 연결: 기술이전, 공동연구, 조인트벤처, 창업 등
- 융합산업 분야간의 연결: IT와 BT, NT와 BT, 전통산업과 BT 등
- 기업과 기업의 연결: 제휴, 기술거래, M&A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
- 병원과 기업의 연결: 중개연구를 통한 가치 창출, 고객 지향적인 제품 개발

## 마치며.....

바이오생태계는

혁신기술과 모험자본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

보다 강건하고 다양한 생명의 풀을 이룰 수 있습니다.



딱啄同時

병아리가 울음소리를 내면 어미닭이 껍질을 깨트립니다.  
생명의 시작은 동시에, 그리고 함께입니다.